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9일 기도

- 기 간: 2024년 6월 17(월) ~ 25일(화)
- 방 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가톨릭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80면)

- 지 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6월 17일(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희망

6월 18일(화): 상호 존중

6월 19일(수): 평화의 일꾼

6월 20일(목):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북향민)

6월 21일(금): 세계 정치 지도자

6월 22일(토): 남북교류협력

6월 23일(일): 과도한 군비경쟁 중단

6월 24일(월): 한반도 비핵화

6월 25일(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6월 17일(월)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

첫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요한 9,41)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폭력을 바라볼 때, 흔히 그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쉽게 단죄하고 비난하며, 적어도 나는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신하며 착각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갈등이 없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2-3)

오늘날 대한민국의 삶은 분명히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에 평화와 번영을 이룬 것이고 지금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면서, 이 모든 불행은 사회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탓이고, 우리를 갈라서게 만든 주변국들의 책임이라며 헐소리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인간은 한낱 그림자로 지나가는데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며 쌓아둡니다. 누가 그것들을 거두어 갈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희망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시편 39,7-8)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곤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시편 32,5-6)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18일(화) 상호 존중

둘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우리는 세상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분쟁을 바라보고 놀라워하면서도, 내 내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말이, 행동이 나와서 우리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지는 않았는지,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은 아닌지 때때로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9,4)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사도 9,5)

어쩌면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회심하기 전의 사울이었던 때처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나만의 정의를 부르짖고 내 주변의 무고한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루카 17,34-35)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것에 따라 한 명은 구원받고 다른 하나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지향으로, 또 어떤 의도를 품고 이웃을 대하였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19일(수) 평화의 일꾼

셋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요한 10,15-16)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뜻에 따라(사도 1,8; 13,47 참조) 일할 평화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견하시고자 당신께서 먼저, 양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시민들·각국 정부·국제 단체 및 기관들, 평화 촉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종교 단체들, 평화를 이상으로 하는 여러 문화·정치·사회 운동, 평화로운 문명 발전이라는 새로운 길에 명민한 통찰력을 가진 젊은이들, 오늘날 평화가 얼마나 필요하고 동시에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 이 모두의 열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성 바오로 6세 교황, <제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세상에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평화의 벗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이들을 격려하시고자 ‘평화의 날’을 제정하시면서 담화문에, ‘현대 인류의 다채로운 음악회에서 전 세계 모두의 목소리가 평화라는 기본선을 고취하기 위해 화음을 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는 이들답게 각자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러한 지지를 표명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누가 과연 남을 위해 선뜻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은총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일들을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0일(목)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넷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루카 12,51-52)

평화를 약속해 주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고난을 겪을 것이니 당신을 믿고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한술 더 떠서, 당신께서 분열을 일으켜 식구까지도 갈라설 것이라고 하시니 하느님 뜻 안에서 겪는 고통이라기에는 분단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처지가 가혹하기만 합니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이사 55,9)

우리는 때때로 삶 안에서 몰려오는 고통에 직면할 때, 하느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며 아파하고는 합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고통은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영원을 약속하는 시각 안에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리게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오로지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이 가혹한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위안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들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용서를 권하고 있습니까! 이 용서는 겉떡어 나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도, 불의 앞에서 굴복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용서는 형제적 사랑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용서는 하느님의 용서를 얻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마태 18,23 이하, 5,44 참조, <성 바오로 6세, 제 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1일(금) 세계 정치 지도자

다섯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요한 13,14)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욕심이란 극복해야 할 원죄의 유산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나의 온 존재를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세계 정치지도자라는 자리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도, 물질세계에 대한 탐욕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그르치기도 쉬운 자리입니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루카 13,7)

모든 직책이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온 목적대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후회 없이 한 생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 그분은 켜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29)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사람이 주는 영광에 사로잡혀 사리사욕만 채우며 일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2일(토) 남북의 교류와 협력

여섯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도둑을 보면 함께 뛰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다. 너는 입을 놀려 악행을 저지르고 네 입술은 간계를 엮는다.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거슬러 말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에게 모욕을 준다. 네가 이런 짓들을 해 왔어도 잠잠히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여기는구나.”(시편 51,18-22)

사회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북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공 포스터에서 “때려잡자, 공산당!”이라는 문구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향민들은 분단으로 자신의 아들딸을, 부모를, 형제자매를 이북에 남긴 채, 남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70여 년 세월 동안 이북에 놓고 온 가족이 사무치게 그리워도 연좌제가 두려워 ‘내 가족이 저기 있소.’라는 고백도 제대로 못한 채, 병어리 냉가슴만 앓고 북쪽을 향해 눈물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를 두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고 사회 혼란이 올까 봐 기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기만 하면 서슴없이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내 혈육이라면 감싸 안기 마련이지, 그 얼굴에 총부리를 가져다 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에 사는 그들이 바로 내 혈육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참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가 정의, 진리, 자유와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세계주교시노드 교부들의 메시지」(Nuntius Patrum Synodaliū ad Populum Dei), 1983.10.29. 참조.)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 하느님 당신과 화해하라는 부르심을 듣는다면, 이 가족은 끝내 심오한 평화 안에서 일치할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제 17차 세계평화의 날 담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3일(일) 과도한 군비경쟁 중단

일곱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루카 19,42)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무기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사력으로 무장한 나라들이 지금 자국의 국민들을 포탄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는 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소유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많은 경비를 들여 최신무기를 사들이고, 큰돈을 벌어들이려고 전쟁으로 처참해진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막대한 군비 지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루카 19,46)

흔히 알고 있듯이, 무기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끔찍한 살상 무기를 그저 돈 벌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멋진 기계나 재산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살상 무기를 파는 것이 살인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이 행진은, 비록 적의 침탈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로막힐지라도, 이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 길을 따라 계속됩니다. 행진의 발걸음이 어찌면 약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 이 행진은 평화의 진짜 무기들을 이용하는 데 전념하는 그런 행진입니다. ... 이 메시지는 어떤 무기든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선과 사랑으로만 무장된 평화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지 상기시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 <제9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사람들은 과도한 군비 지출이 안보와 평화를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인 말씀들로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마태 5,39)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4일(월) 한반도의 비핵화

여덟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내 몸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지라도 ...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칠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시편 27,2-5)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의 본성이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대사제 외에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지합니다.

“애원합니다. 제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는 데서 돌아서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사회의 조직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멈춰 주십시오. 폭력의 방식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참된 정의를 혹은 그 밖의 누구라도 그를 위한 참된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어느 인간 존재나 다 그 안에서 형이나 누이의 얼굴을 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결합하는 것은 우리를 분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결합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습니다 ...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제 20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라면, 참으로 평화를 위한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가 아니라 형제적 사랑과 믿음에 찬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6월 25일(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

아홉째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사도 13,47)

우리가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알려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하느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합니다.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 53,5)

참된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고,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큰 사랑에 보답하며 은혜를 갚으려고 온 정성을 다합니다. 부모의 헌신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 가련한 여인이,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이 ... 너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 네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이사 54,10-14)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빌며 축복합니다.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우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자녀들인 우리의 행복과 평화입니다. 그것을 위해 복을 내려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녀들은 복을 받고 그 보호 속에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실현은 이런 이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